

# 2022 인천 평생교육 정책포럼

- 특별대담집 -

2022. 12.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

## 평생교육의 현재와 미래, ‘시민대학’으로 방향을 제시하다

- 대담 주제 : 평생교육과 시민대학의 현재와 미래
- 일 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00~12:00
- 장 소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미추홀
- 참석자
  - 사 회 : 이로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좌 장 : 김명랑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장
  - 패 널 : 이은미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학습지원센터장  
이희정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팀장  
장선영 한성대학교 교수학습센터장  
조부현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하병훈 인천대학교 평생교육트라이버시티 원장





**이로미(사회자) :** 오늘의 특별 대담 좌장과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담의 좌장이십니다. 인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이신 김명랑 박사님이십니다.

이어서 패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 학습지원센터 센터장이신 이은미 교수님이십니다. 이은미 교수님은 버지니아 주 조지 메이슨 대학교 교수, 메릴랜드 주 록빌 시니어센터 교육 프로그램 고문 등을 역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팀장이신 이희정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정 박사님은 건양대학교 연구교수,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문화대학원 외래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성대학교 자율교양학부 장선영 교수님이십니다. 장선영 교수님은 한국 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대리, 남서울대학교 부설 원격 평생교육원 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조부현 센터장이십니다. 조부현 센터장님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시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학교 트라이버시티 원장 하병훈 교수님이십니다. 하병훈 교수님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콘텐츠 산업 발전협의회 위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등단하셔서 착석하셨는데요. 그럼 특별 대담회 진행을 위해서 김명랑 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랑(좌장)** : 안녕하세요.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김명랑입니다.

사회자 이로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포럼은 평생 교육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 시민대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내놓으라는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진행할까 합니다. 사전에 패널분들께서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미리 드려서 준비를 해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으로 보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에서 시민대학을, ‘시민대학 집현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인천보다 먼저 시작하셨고요. 오늘 멀리서 진흥원 가족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희정 박사님께 세종시민대학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지금 주요 사업이나 강좌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시도에서는 시민대학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종시민대학의 추진 배경과 성과, 특수성

**이희정** : 안녕하세요. 세종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 팀장 이희정이고요,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것들을 이미 너무나 지금 잘하고 계셔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서로 오고 가는 것 속에서 정이 든다고 작년에 인천에서 오셨었어요, 저희 세종시에. 그때 “집현전에 대한 시민대학 모델링이 너무 좋은데 어떤 건지요?”라고 하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세종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 특수성이 있어요. 행정수도라는 게 첫번째 특수성이고요.

두 번째 특수성은 세종시는 시민분들이 전국 팔도에서 다 오셨습니다. 새로 기획된 도시다 보니 너무나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을 찾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수성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백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세종시가 시민대학 집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에 저희 진흥원이 출범을 했고요. 17개 광역시 진흥원 중에 16번째 진흥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이미 선배님들이 있어서 진흥원의 좋은 모델들과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빨리 겪고 새로운 걸 가져오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걸 가지고 가자라는 게 있었고, 첫 번째 2016년에 제가 오자마자 시에서 나왔던 미션이 ‘시민대학을 만들어봐라’라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물론 선배님들이 했던 그 기관들을 갔지요. 서울, 대전 이런 곳을 가면서 시민대학의 모델링을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 2019년에 연구 용역을 했고, 2020년에 벤치마킹을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저희도 각오를 했고요. 그리고서 2021년에 시민대학이 만들어졌어요. 그 모델링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세종시에는 저희 시민대학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하고 또 연결이 됐던 것들이 미네르바 대학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대적으로 반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긁어 모아 플랫폼 기능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의 특징

- 행정복합센터 중심의 권역별 학당, 대학연계 학당, 연관기관 활용 통합관리
- 명예학위제 도입(활용)

저희 시민대학의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습도시 세종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우수한 강사진을 모집해 시민들께 전문 강의를 제공하고 일정 학점 이수자에게 명예 학위를 부여하는 평생학습 시스템이다’라고 했어요. 시스템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세종시는 38만의 인구밖에 안 돼요. 하나의 구 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광역과 지자체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또 특수성이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시민대학이 그 역할을 해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대학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전문적인 걸로 교육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세종시의 특수성 중 또 하나가 동마다 ‘복검’이라는 곳이 있어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잘 알고 계신 행정복합센터라는 곳이지요. 너무나 좋은 강좌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모아보자. 그래서 21개의 복검에 있는 걸 다 모으지는 못하겠지만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한번 나눠볼까? 서울에는 강남 강북이 있듯이, 우리 세종시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일단 복검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학당을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대학이라는 곳이 저희 시에는 세 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대학 캠퍼스를 활용해서 대학 연계 학당이라는 걸 만들어봤고 세 번째는 세종시하고 관련된 유관기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 교육을 하고 있는 곳.

저희는 도농 복합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아 농업기술센터 여기에서 농업기술대학을 하고 있네? 거기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모아볼까?’해서 15곳에 있는 저희 기관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세종시의 타이틀을 그렇게 해서 총 24개의 기관과 대학과 저희 복검을 활용을 해서 시민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시면 “세종 시민대학 집현전 어디 있어요?” “네, 세종시가 다 시민대학 집현전 이에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38만 인구 중에 저희 연인원 학습자가 4만 6천 명이 넘어요. 너무나 많죠. 놀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것은 집체 수업을 해요. 모이면 코로나 때문에 강의장에서 거리 두기를 해야 해서 5명, 많이 모여야 10명이에요. 강좌 수는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가 140개 강좌를 열었어요. 아까 말씀

드린 그 곳곳에서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근거리 학습망의 복컴(복합커뮤니티)이 있는 곳에서 들으시고, 내가 있는 곳 가까운 대학에서 들으시고, 내가 있는 어떤 기관에서 듣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2021년에 저희한테 왔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연결할까요?”에 “열정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김월용 원장님께서 너무나 큰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순간 제가 와~ 만드셨구나! 그렇게 축하드렸고 그리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서로 공유해요. 좋은 거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먼저 했지만 더 좋은 걸 만드시면 그럼 우리도 거기서 배우고 또 우리 세종시에다 접목할 수 있는 것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교육을 하고 난 후에 항상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PDCA 관점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었니? 그 성과가 도대체 어떤 환류 체계가 돼 있는데?”라는 것으로 저희는 항상 공격을 받아요. “교육해서 뭐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아 실현, 매슬로우 욕구에 의해서.”라고. 그랬더니 평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지가 않아. 보이는 것을 줘 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세종시는 세종대왕님의 그 얼을 받아서 하는 한글 문화 도시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한 캠퍼스라는 용어 대신 학당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 학위를 받을 때 그 학위제를 집현전 학사에 있었던 그 학위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4년제 학위에 관련된 걸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전임 학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은 뭘로 할까? 부제학이라 했고, 박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제학이라는 용어를 썼죠. 물론 이건 연구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저희 시민분들한테 한글 반포하듯이 “학위제도, 이렇게 반포합니다.”라고 했고요. 인천 칼리지에서도 인천 시민대학에서 너무 잘해주셨던 게 누구나 쉽게 접근을 했어요. 저희도 ‘누구나 쉽게’를 하기 위해서 학점이라는 것을 시간수로 그냥 했고요. 아까 말한 전임 학사는 100시간,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부제학 같은 경우에는 200시간, 그다음에 대제학은 365시간, 우리 시민분들이 365일 공부하듯이 365 시간을 합치시면 이런 대제학을 받아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해요, 시민분들이. “그거 학위 받아서 뭐 할 건데?”, “뭐 하실 건데요? 우리 시민으로서 저희 시민대학에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강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나눔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러시잖아요. 제일 기쁠 때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있는 거를 쉽고 편안하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알아왔을 때 뽐뽐해져요. 교수님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우리 시민분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죠.



배우신 거 이제 우리 시민분들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이게 가장 큰 걸로 저희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8분 했는데 좀 많이 했죠? 이렇게 저희 세종시민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랑** : 듣다 보니까 너무 스토리가 좋아서 제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패널 포럼이다 보니까 시민대학이 평생교육에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만 살짝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세종 시민대학의 평생교육에 대한 시사점

- 시민의 높은 교육 요구도와 대응 가능한 교육과 교수진으로 집단 지성 추구 가능

**이희정** : 어떤 사실 시사점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PDCA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게요. 어떤 성과냐?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시민의 요구도가





여러 지역에서 오셨고 저희 시민들이 하신 얘기가 강남 못지않은 교육을 만들어주세요. 강남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문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교육과 교수진들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집단 지성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게 저희 평생 교육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랑 :** 평생교육의 지향점이 시민대학을 통해서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또 세종시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도 저희가 인천 시민대학을 만들 때 벤치마킹을 가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온 곳인데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인천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의 대표적인 대학들, 지금 교수님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일단 글로벌 캠퍼스에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이은미 교수님께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민대학을 실제 운영하고 계신데 해외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인천 시민대학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같은 방향성이나 또 저희가 배워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실제 사업하시면서 이 시민대학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의 시민대학 사례로 살펴보는 방향성과 배울 점



**이은미** : 안녕하세요,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온 이은미 교수입니다. 우선 제가 그 주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신 뉴스가 있었죠. 인천시 산하기관 중에서 올해 최고의 산하기관으로 뽑힌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표 유병운 대표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축하 박수 드리고요. 저희 시민대가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산하기관 대표 중에서 탑으로 선정되신 우리 김월용 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인천 시민대가 큰일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인천 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는 조지메이슨 버지니아 캠퍼스 본교 캠퍼스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도 평생교육에 몸을 담았었는데 미국 사회에서 평생 교육을 얘기할 때 가장 주축이 되는 기관이 인천에서는 인천시민대고요, 미국에서 가장 평생교육의 주축이 되는 기관은 커뮤니티 칼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CE (Adult Continuing Education) 그 주축이 커뮤니티 칼리지인데 아마 미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그러면 대개는 전문대학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정체가 2년제 준 학사 과정이 주축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비학사 과정, 거의 성인이나 혹은 평생 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비학사 과정도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주축으로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 검정 시험 준비반도 있고요. 또 이민자들, 혹은 해외에서 오신 유학생들을 위한 ESL 교육도 무료로 진행되는 곳이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교육,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학위 교양 교육, 그러니까 그 모든 전반에 관한 초-중-고등-대학-대학원 이 사이의 틈새를 뽁뽁하게 메우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모든 교육체계 전반에 걸친 접착제 역할 수행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말에 이민자들을 위한 문해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남미 계통의, 10년 이상 미국에 있어도 A,B,C,D도 읽을 줄 모르는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영어 읽기부터

기초 말하기 등을 가르쳤는데 지역 초등학교를 빌려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에 학생들이 저한테 마켓 데이니까 마켓에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 강당에 갔는데 정말로 마켓이 쏘습니다. 우리나라 5일장 같은 채소며 식재료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뭐 바구니에다 굉장히 많이 담아요. 굉장히 싸게 제공하나 보다 했는데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한테도 선생님도 “Teacher, Take it, Take it.” 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는 마켓 데이였는데, 뭐냐 하면 대체로 문해 교육을 받는 노동자들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공부도 하고 또 장에서 제공하는 공짜 식재료를 많이 가지고 가서 주말을 거룩하고 편안하게 보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르쳤던 것이, 크레딧 코스이기도 한데 의사·간호사, 혹은 의사·간호사 지망생들을 위한 메디컬 잉글리시 클래스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온 의사들이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 공부를 하려면 일단 영어를 배워야 해요. 해외에서 진입한 간호사들 혹은 간호사 지망생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영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진행하면서 뭐까지 진행했냐 하면 각 사회기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장학금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난민들, 이런 분들,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가 안 되는 분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돈 많이 끌어다가 난민들한테 제공하는 일을 강사인 제가 했습니다.

## 미국 평생교육의 특징

- 1) 교육과 사회복지의 병행 실시
- 2) 비학위 코스로 시작해 학위 코스로 연결

제가 이런 미국의 실제 성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뛰었던 이야기를 나누려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미국의 평생교육은 교육과 동시에 사회복지가 함께 병행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평생 교육은 비학위 코스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학위 코스로 연결되고,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준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거의 자동으로 주립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 버지니아에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있는데 가수 주영훈 씨가 거기 나왔죠. 그런데 그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하면 대부분 구십 퍼센트 이상 조지 메이슨이나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같은 주립대에 거의 자동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비학위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다가 학위 프로그램 이수를 하고 주립대를 가서 주립대를 나온 다음에는 석사 박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의 평생학습은 복지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평생 학습이 단순히 ‘그래, 여기서 잘 배웠어. 즐거워.’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한테는 상위 학습 기관으로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평생교육에 대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제가 컨소시엄으로 제공된 세계 시민 캠퍼스의 일부를 담당하게 됐는데,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는 4개 대학이 있고 그중에서 3개 대학,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뉴욕 주립대학교, 그리고 유타 아시아 캠퍼스, 이 3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함께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영어강의 수업 등 국제캠퍼스 문화 체험이 가능한 글로벌캠퍼스

많은 분들이 국제 캠퍼스를 잘 모르세요. 왜 모르시는가 하면, ‘거기는 말이야, 한국어가 통해? 웬지 거기 가면 한국어도 안 통할 것 같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분명히 있긴 한데 사람들이 낯설어하거나 혹은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난제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첫 해 수업을 계획하면서 저희로서도 난관이 많았습니다. 저희 공용어가 영어고요, 모든 서류가 영어로 진행되고 모든 교수들이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개설할 때는 한국어로 강의를 가능한, 그러니까 한국어 교수님들을 우선 섭외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제 수업에서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이제 한국어로 수업을 개설 했는데 제가 소개를 했어요. “제 수업은 조지메이슨 신입생 2학기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께서 “영어로 강의를 하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한테도 영어로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죠.” 그래서 그냥 즉시에 그 순간부터 영어로 10시간 수업을

잘 진행했고, 그리고 아까 소개 자료에도 저희 학생들 수업하는 장면 잠깐 나왔는데 학생들이 영어로 읽고 쓰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잘 해냈고 성취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지요. ‘이분들이 국제 캠퍼스를 선택하셨을 때 국제 수업을 듣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강의를 해도 되겠구나.’ 1년간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고 수업을 통해서 국제 캠퍼스를 찾아주시는 인천 시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캠퍼스의 문화에 한 번 젖어보고 싶거나 혹은 저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유학 좀 한 번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셨던 분들 거기서 해외 유학의 경험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그래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는 내년에 한 50대 50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50퍼센트, 그다음에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50퍼센트, 이 정도로 약 15개 과목을 개설할 생각입니다. 한국어로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이유는 아직도 영어가 쉽지 않은 분들에게도 국제 캠퍼스의 문을 열어드리겠다는 거죠.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도 들으실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저희 조지메이슨 대학교는 특히 패밀리 위주의 수업이 많이 진행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손잡고 오고 가족이 함께 와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많이 개설될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땡스기빙 패밀리 페스티벌(Thanksgiving Family Festival)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정말로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수업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랑 :** 글로벌 캠퍼스는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시민대학 모델을 만들어주시고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복지 교육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의 커리큘럼을 내년도에 많이 개설하실 계획이어서 인천 시민대학의 모델이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인천대학교는 문화예술 쪽으로 특화가 돼서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가장 반응이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트라이버시티 원장님이신 하병우 원장님께 그 사례를 듣고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또 국립대학에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나 제안해 주실 점이 있으면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분야로 특화되어 운영된 인천대 트라이버시티의 온시민캠퍼스



**하병훈**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 원장 하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인천대학교 트라이버시티 원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트라이버시티라는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낯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시민대학과 같이 출범할 때 저희인천대학교도 조직 개편을 하면서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 이유가 아시다시피 대학은 유니버시티라고 그러잖아요. ‘유니’, 이게 뭐 하나의, 단일의 뜻이고 ‘트라이’는 세 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유니버시티’



이래가지고 ‘트라이버시티’로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누구나 20대 때 대학을 한 번 다 갑니다. 그리고 20대 때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줄어서 대학 입학 정원이 학생 입학 적령 인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방 대학은 이제 앞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위기감을 고조시키잖아요. 현실이 사실 그렇고요. 어쨌든 20대 때 청년들은 대학을 한 번 간다. 그리고 40대 중년 혹은 중장년 때, 삶을 또 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전환기 시점에 대학을 한번 가서 공부를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60대 노년기 때 삶을, ‘제2의 인생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다시 또 한 번 대학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트라이 유니버시티’, 줄여서 ‘트라이버시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새롭게 개편을 해서 평생 교육 트라이버시티로 나아간 겁니다.

이게 우리 인천 시민대학이 앞으로 지향하는 바와 크게 저희가 같이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대학이 해야 할, 대학이 인천시민과 시민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같이 더불어서 시민들과 같이 살아가는 장이 돼야 하는 그런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천대학교는요, 이번에 **온시민 대학교**라고 저희가 시민 라이프 칼리지를 맡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온시민, 온누리, 온나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천 평생교육 통계라고 2021년도에 인천 평생교육 참여자의 참여 교육 영역과 희망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하고요, 자격증 인증 과정과 직무 능력 향상 교육, 경제 경영 관련된, 어떤 창업과 관련된, 직무 능력 향상 교육과 관련된 이쪽 분야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인천대학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약간이라도 좀 더 상대적 우위에 있고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좀 특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저희가 평생 교육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분야는 저희가 세계 경제 규모 12위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치중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전히 취업, 창업, 그다음에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치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는 어쨌든 **문화예술로 특화해보자**. 그리고 취업,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특화해보자고 해서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이 분야에 대해서 특화해서 교육을 담당을 했고요, 그쪽 관련된 강좌들을 쭉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냥 따분하게 ‘연극 교실’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을 좀 창의적으로 새롭게 한번 다가가 보자, 재밌게 신선하게 다가가 보자, 그래서 강의 제목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안의 오케스트라, 춤으로 만나는 인생 그리고 연극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 다음에 무대에서 삶을 치유하다 이런 식으로 보다 더 시민들께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인생을 왜 사냐고 묻거든 결국에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즐기냐’라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화 예술하고 연결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그렇게 열심히 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랑 :** 네 감사합니다. 워낙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직접 강의도 만들어주시고 하셔서 그쪽 분야가 훨씬 더 시민대학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삶 속에서 좀 배워가는 거를 강조해서 특성화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앞전에 말씀해 주신 트라이버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패널 주제에 딱 맞는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 전문가들의 경험과 학습, 지역 환원의 가치 있는 활용분야

시민대학의 강좌나 강의 관련해 공급자 측면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시민대학 학생들에게 활동의 기회와 그다음에 제2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인천의 유관기관이기도 한 자원봉사센터장님이신 조부현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지역사회에 인천 시민 대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문적 의견을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 시민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좀 요청드렸어요. 관련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부현** :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조부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김월용 원장님의 강의와 발제를 들으면서 ‘아 왜 진작에 이런 과정들이 개설이 못 됐었을까?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 교육 과정이라던가 실천 프로그램들이 왜 연결되지 못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시민 라이프 칼리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연계될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특히나 인천은 지역적 특성이 지역 주민들이 애향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고민이



저희 자원봉사 부분에도 있었고 제가 전에 활동했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항상 있었습니다. 시민의 참여는 항상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민의 참여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낼까’라는 의문에 있어서는 항상 사업을 하는 파트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원봉사’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도서관, 학교 이런 데서도 오셨는데요. 저희가 학교, 학생 자원봉사, 그리고 도서관자원봉사 등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단체를 육성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광역으로는 광역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각 시군구에는 기초자원봉사센터들이 있습니다. 저희 광역단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단체와 기관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기초 센터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사업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직접 활용해서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현장의 실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다 보니 저희가 코로나라는 아주 크나 큰 위기를 한 3년 정도 겪으면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대면 활동 위주의 자원봉사가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전문가 영역에 대한 자원봉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의 활동들이 요청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경험보다는 전국적이신 분들, 그리고 타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실지에 대한 고민들이 스스로들도 있으셨습니다.

그 첫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게 시민 라이프 칼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지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 라이프칼리지에서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계셨던 분야의 경험들을 다시 한 번 연계하고,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지역에 환원을 하고 가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자원봉사 활동이야말로 지역에서 그분들의 활동영역이고, 재능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활동들이 많아지고 “기후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라는 의심을 갖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 올해는 특히나 재난이 많았던 해입니다. 산불이라든가, 호우라든가, 이런 재난이 많았던 시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 자원봉사를 통해 문제가 일어난 곳에서는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일상생활의 조그마한 변화들을 통해서 조금씩 예방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신들의 활동들을 통해 변화를 조금씩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린 플래너’도 양성해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중에 꾸준히 자원봉사를 하셨던 거의 100세에 가까우신 자원봉사자 분을 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육을 꾸준히 받으시면 현장에서 그걸 꼭 실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건강 관리도 하시고 지역의 주민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평생 교육과 자원봉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연계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민 라이프 칼리지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 처장님께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연결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은 교육 과정 내에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배워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원봉사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라이프 칼리지를 수료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배우셨던 것들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그분들이 함께 활동하고 지속화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까 이은미 교수님께서 외국에서는 교육을 하고 나서는 꼭 사회복지 교육이 들어가고 그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원봉사와 함께 연계되는 거야말로 그런 과정으로 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저희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서 ‘10개 시군구가 같이 고민을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약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랑** : 저희도 내년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좌들과 좀 더 친숙하게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저희와 하시고 또 인천다운 지역사회 교육 모델을 시민대학에서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패널 분 말씀을 들을 차례인데요. 한성대학교 장선영 교수님이십니다. 저희와 이번에 [시민 강사 인증제]라는 연구를 함께 해주셨어요. 저희가 시민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또 석사 박사 과정이 되면 강사나 교수 타이틀에 어울리는 시민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 내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려운 연구였는데 잘 수행해 주셔서 오늘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장선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교·강사의 강의 지원을 위한 인증체계 개발



**장선영** :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성대학교의 장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연구가 이제 막 마무리가 됐지만 조금 더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여기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좀 더 경청하고 그것을 반영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깊은 배려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한성대학교에 있지만, 전에 근무했던 대학교에서는 거의 8년 가까이 원격으로 하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보직을 수행했었습니다.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이 기존에는 대부분 오프라인 베이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다양한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그중에서도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학점은행제를 잘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제도로써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인데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뛰어넘기 위해 평생교육의 ‘원격화’에 점점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시기에 저는 대학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에 근무하면서 다년간 평생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대학교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이프 사업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으로의 직접적인 진입을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즉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과대학을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몸 담고 있는 한성대학교는 계속해서 라이프 사업을 하던 대학이었고요. 서울 권역에 몇 개 안 되는 대학 중에서도 매우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총 5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한 3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주로 융합 학과 위주로 구성,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8월에 첫 번째 조기 졸업생이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졸업을 하는 분들이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을 맞이하셨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평생 교육이 얼마만큼 그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기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가 몸소 체험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한 것을 통해 봤을 때는 대학이든 지역사회든 외사랑이었어요. 평생교육은 지역사회하고의 연계가 아주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연적 관계가 아닌 그동안은 대학기관들만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 기관들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만 구성이 돼 왔었는데 여기 인천에 와서 제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기관들과 대학 그리고 여기 인천 지역사회하고의 협업이 잘 되서 외사랑이 아닌 정말 소통하는 사랑이 넘치는 지역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평생교육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그리고 인천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노력들이 점점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중임을 알게 됐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죠. 두 번째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 간에 주고받는 내용물인 바로 교육내용,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커리큘럼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환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고르게 다 잘 갖추고 있는 데가 또 인천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과정도 이렇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환경적 측면도 그렇구요. 학생들 또한 의욕이 넘칩니다. 열정이 넘치는 교수님들과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기존의 강사분을 포함해서 교수로 명명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육의 중요한 요소들이 좀 더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속되는 질 관리가 중요하고 그런 질 관리를 위해서 물론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기존 시민대학 현황과 사례들을 저희가 면면히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헌 조사에서부터 또 관내, 관외 다른 타 시도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생교육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조사, 또 전문가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또 무엇보다 학생분들의 요구 조사도 아주 중요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 강사의 선발 인증 체계를 구축해보려 했는데 ‘감히 어떻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인증할까?’라고 처음에는 좀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기존에 대학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인증 체계들로 접근하기에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을 도와 좀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서 그분들을 도와 좀 더 나은 강사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교·강사 3단계 인증체계

1단계 : 강사 선정

2단계 : 본인인증

3단계 : 인증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그래서 총 3단계에 걸쳐서 인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선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지만 실은 선발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의 이력을 모으는 과정,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런 이력을 가지고 나름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단계로 1차 강사 선정 단계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인증 단계입니다. 강사 풀을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목적의 교육을 진행하는 두 번째 본인인증 단계를 두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전문가분들이시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인증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분들을 위한 인적·물적·시스템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연구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연구보고서가 발행이 되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랑** :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분들이 말씀해 주신 방향성과 과제 부분들은 추후에 연구 과제나 시정 과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제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미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분들을 어떻게 좀 더 좋은 자격을 갖추어서 활동할 수 있게 시민대학에서 지원하느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타 시도와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에 주어진 다른 정책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간추려서, 오늘 또 패넬토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의견들을 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실 좀 색다르게 토론을 준비해 봤습니다. 딱딱하거나 발표 형식이 아니라 정말 경험이나 전문적인 소양들을 시민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접근하고자 포럼을 준비해봤고요.

오늘 이루어진 내용들은 지금 영상으로 녹화가 되고 있고요. 영상 녹화본을 정리해서 저희가 대담집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담집이 자료가 되면 홈페이지에다 올릴 예정이고요. 그런 정리된 내용들은 사후 공유해서 또 성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미** : 정말 특별한 특별 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요, 내년도 강의에 반영할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청중 Q&A





**이로미 :** 지금부터는 기초 발제와 이번 특별 대담 두 가지를 들으시면서 참여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시간을 한 10여 분 정도 가져볼까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 패널 분이 계시면 패널 분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느린 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교육 과정이나 교수법에 반영되고 있는가?

**청중 :** 저는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영대입니다. 저희도 오늘 4시부터 평생학습에 관한 포럼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포럼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SDG4,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르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최근에 나온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의 보고서가 있거든요. [교육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평생학습에 관해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교육 소외계층 중에 하나가 아예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이른바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비율이 통계상 한 1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에도 그대로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 평생 학습을 원하는 10명 중에 1명은 느린 학습자고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흥미나 재미나 성취를 거둘 수 없는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느낌상 보면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면 평생 교육이 그런 느린 학습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교수법이나 기타 등등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한 시도의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랑 :**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패널 분 계시니까요. 장교수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장선영** : 제가 일부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 인증 프로그램으로 디테일하게 프로그램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느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특히 그들을 대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수법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저희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훈** : 제가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국감에서 국회의원께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질의를 저희들한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학습을 담당하면서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어떤 층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건, 지금 진흥원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대학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담당도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원이 우리 대학에서 차지하는 부서로서는 사실 좀 굉장히 작은 기관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전체에서 평생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교수 사회에서 좀 굉장히 약한 게 사실이구요.

거기서도 다시 또 느린 학습자에 대한 어떤 요구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어떤 위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령 인구가 너무나도 줄어들어 대학의 존폐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러니인데요, ‘평생 교육’하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이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 역시 평생교육원을 대학의 수익을 이끌어 주는 학교, 이끌어 주는 기관으로, 평생 교육을 하면서 수익을 항상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런 부분에서 평생교육을 그렇게 인지하면서도 앞으로 시장은 평생교육밖에 없다, 평생교육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하는데도 아까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은 학교에서 볼 때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는 보통 초중고의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이라서 이해상충을 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평생학습을

할 때 이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또 어떻게 방안을 찾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로미** : 의미 있는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 마을 교육과 연계된 평생학습을 인천 중구와 함께하는 것을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청중** : 인천 중구청 평생교육과장 심규홍이라고 합니다. 아까 조지 메이슨대 이은미 교수님이 얘기하신 커뮤니티 칼리지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평생교육과는 마을 교육과 평생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다니지 못해서 밖에 있는 아이들인데, 개네들이 비학위 프로그램에서 학위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을 평생학습에서 마을 교육과 연계된 것들로 만들어 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인천 중구에서 시작하는 것을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와 인천평생교육원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천 중구는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라고 하는 두 가지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도심에도 대학이 없고 다만 동구에 재능대학이 있어서 재능 대학을 연계할 부분을 찾고 있지만,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의 학부에 연계된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원하는 구들이 많은데 대학들이 찾아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없다 보니까요 사실 인천 중구에 내년에는 하늘 중학교 내에

평생학습관이 구축이 되는데, 만들어지게 되면 대학이 찾아와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성도 있는 교육이 되면 같이 좀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로미** : 이은미 교수님이 크게 공감하셨는데요.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찾아가는 인천시민대학’ 제안



**이은미** : 시간관계상 소개를 못 드렸지만 제가 인천시민대학 정책으로 장차 해결해야 할 제안이 ‘찾아가는 인천시민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나 지역사회 혹은 전문가 집단에 특강하러 나가거든요. 초청하면 갑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원하면 제가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중구청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대학 수준의 강의를 열어 주십시오’, 하면 제가 가거나 제 동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정** : 저희 세종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종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3개 대학밖에 없는데 8개 대학하고 학점 연결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저희 세종시에는 대학의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지만 세종시 인근에는 대학이 있어요. 대전광역시가 있고요, 옆에 공주시가 교육으로 또 유명한 곳이고 오송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청주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국립대학교 지원 사업이라는 거죠.

저희가 광역하고 연결이 되니 ‘세종 시민들에게 우리 대학의 교육을 한번 제공하고



싶습니다’라는 것들을 플랫폼으로 만들어 서로의 합의점이 만들어졌고 아까 무료 교육을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무료 교육이 되고 그 대학의 전문화된 교육을 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비학위 과정을 학위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해결점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하는 것 중에 I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선행학습인정) 사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까 그 대학에서 이 IPL 사업으로 연결을 했어요.

일례로 한국영상대학교라고 영상 쪽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 있는 걸 IPL 사업을 통해 국비 사업으로 하이브 사업을 끌어왔고 우리 시민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비학위 과정으로 학위로서의 선행학습을 인정받아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위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됐거든요. 충분히 인천은 너무나 좋은 대학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비 사업과 연계를 하신다면 멋진 칼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로미 :**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쉽게도 시간관계상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또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노인교육을 75세 전후로 구분해 이원화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중 :** 금년에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정복지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86세인 고재호입니다. 지금 한국에 65세 노인이 13.8%로 860만 명입니다. 인천시에는 13.6%로 40만 명입니다.

우리 인천시 노인 인구가 이희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제가 금년에 인천시민대학에서 제1학기에 9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처음에 평생학습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과목이 나한테 필요하나 회의적이었는데, 2학기에 6과목까지 더

추가할 때는 우리 김월용 원장님의 입지적인 여러 가지 인물, 여러 가지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고는 이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의 300만 인구 중에 노인이 지금 40만 명입니다. 그 중 전국에 80세 이상 인구가 75년에 150만 명인데 지금 200만입니다. 지금 인천시에도 9만 명입니다.

그러면 정책실장님이 앞으로 65세부터 90세까지 100세까지를 통괄적으로 노인 교육을 하지 말고 65세부터 75세 그 이상으로 구분해서 노인 교육을 자원 봉사하고 연결하고 구분해서 노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65세부터 80세까지 포괄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김월용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저도 같이 100세까지라도 같이 평생 교육을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로미 :** 감사합니다. 의견 주신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응답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 응답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해 주신 좌장 김명량 박사님과 모든 패널 분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